

신경영학 프레임워크 연구

김 현 수*

목 차

요약	
1. 서론	4. 신경영학 상세 구조
2. 현대경제사회와 경영학	4.1 경영철학
2.1 현대경제사회와 서비스철학	4.2 경영자론
2.2 경영 및 경영학의 문제	4.3 경영기술
3. 신경영학 프레임워크	5. 토의 및 과제
3.1 신경영학의 기반구조	References
3.2 경영학 프레임워크	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신경영학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립되는 힘들 간의 치열한 대대원리 및 변증법적 과정과 상반상성이 서비스철학의 중심이므로 신경영학의 구조와 방법론은 이러한 철학적 기반을 반영하여 구축되었다. 현대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경영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영학 체계를 제시하였다. 현대경제사회의 거시적 변화와 미시적 변화를 모두 분석하여 신경영학 체계정립에 반영하였다. 학문으로서의 기존 경영학의 본질적인 문제와 실무적인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문제 해결책으로서 신경영학을 제시하였다. 신경영학은 본질학문으로서 위상을 가져야 하므로 인류사회를 움직이는 공통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인류가 살아가는 환경인 우주의 원리와 인류의 생명원리를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인류대표사상과 예술원리도 분석하여 신경영학 체계 구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공통원리를 도출한 결과 경영학의 본질 학문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정의될 수 있었고, 경영학의 학문적 체계는 3을 사용하는 것이 진리에 가까움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신경영학 체계는 3개의 분야로 구축된다. 경영철학, 경영자론, 경영기술 등의 3개 분야가 경영학을 구성하는 하위분야가 된다. 경영철학은 경영과 경영학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경영자론은 경영의 주체로서의 경영자와 경영의 객체로서의 경영자를 탐구하는 분야다. 경영기술은 그동안 경영학의 중심 분야였던 경영과정론, 경영기능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신경영학의 각 분야에 대한 세부 구조를 정의하고, 주요 탐구 주제를 제시하였다. 향후 경영학을 본질학문화하기 위한 심화연구가 필요하며, 세부 분야의 이론 구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표제어: 신경영학, 서비스경영, 서비스철학, 경영철학, 경영자론, 경영기술

접수일(2020년 1월 3일), 수정일(1차:2020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9일)

* 국민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hskim@kookmin.ac.kr

1. 서론

경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다. 제한된 자원으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활동을 경영이라고 정의할 때, 경영 활동은 역사시대 전체의 중심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을 연구하는 학문인 경영학은 인류의 본질학문으로서 자격을 가진다. 기존의 경영학은 기업경영 성과향상을 위한 도구적 지식을 제공하는데 그쳐 본래의 학문적 위상이 낮게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본질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을 신경영학이라 명명하고 신경영학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신경영학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대립되는 힘들 간의 치열한 대대원리 및 변증법적 과정과 상반상성이 서비스철학의 중심이므로 신경영학의 구조와 방법론은 이러한 철학적 기반을 반영하여 구축될 수 있다. 서비스철학의 태극구조를 반영하여 신경영철학도 태극구조로 도출되었다. 우주원리와 인류역사원리, 철학과 종교의 중심 사상을 반영하여 신경영의 인간관, 사회관, 경제관이 태극구조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함께 신경영학의 대상과 경영의 위상도 정립되었다. 정치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영역이 신경영학의 대상이 되었다. 기존의 주된 경영 대상이었던 영리기업은 물론이고 비영리조직들과 정치 및 행정서비스, 사회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등이 모두 경영의 핵심 대상이 되었다. 즉 경영학이 인류사회의 중심 주제이며 타 학문은 이를 지원하는 기초학문 또는 보조학문으로서 역할을 하는 구조로 도출되었다. 신경영을 연구하는 신경영학의 기본 구조를 완성하였다.

제 2 장에서는 현대경제사회의 변화를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경영과 경영학의 문제를 본질학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경영학의 대상 범위를 정치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등 세상사의 전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을 도출하였다.

제 3 장에서는 현대경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경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경영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인류사회의 공통원리를 도출한 후, 이를 반영한 경영의 기본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신경영을 수행하고 연구하기 위한 신경영학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신경영학의 세부 분야를 제시하고, 연구주제를 토론하였다. 신경영학의 3분야인 경영철학, 경영자론, 경영기술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창조와 혁신이라는 두 개의 주된 기능을 경영의 기반 축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경영에서는 중시되지 않았던 경영자론을 신경영에서는 매우 중시하여 3대 분야의 중심축으로 격상시켰다.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경영자가 경제사회변화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제 5 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하였다.

2. 현대경제사회와 경영학

신경영학의 체계는 기존 경영학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대경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 그림 <Fig.2-1>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신경영학 프레임워크가 도출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 프로세스의 첫 번째 과정인 현대경제사회 분석과 경영 및 경영학에 대한 문제 분석을 수행한다.



Fig. 2-1 A Process of Constructing a New Management Framework

2.1 현대경제사회와 서비스철학

경영학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기 위해 경영학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을 분석한다. 현대경제사회의 방향을 분석하고 현대경제사회의 사상적 기반인 서비스철학을 경영학 관련 관점에서 분석한다.

2.1.1 현대경제사회

현대경제사회는 시간, 공간, 인간 관점에서 기존 경제사회와 크게 차별화된다고(Kim, 2019a). 현대의 특징은 실시간 경제사회, 초연결 글로벌 공간, 주체적 인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리터러시 증대로 개인의 주도적 역할이 경제사회 전체 차원에서 크게 증가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이 단일 차원이 되었다.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고, 지식의 보편화 현상이 촉진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인구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면서 거의 모든 개인들이 주체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번역기술의 발달로 전세계의 모든 지식들에 대해 대다수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소수의 인구가 고비용으로 지식을 독점하던 시대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당 수준의 지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하고 보유하는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구글과 네이버 등 지식 및 정보 검색서비스가 고기능화되면서 개인의 지식 획득 역량이 대폭 증대되었다.

제4차 및 제5차 산업혁명도 현대경제사회의 주요 변화요인이다. 사이버시스템과 물리시스템이 결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제5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간의 역할이 크게 변화한다. 기계가 모방하기 어려운 직무에 인간의 역할이 집중되는데, 매우 정교한 신체동작이 요구되는 직무나, 고도의 창의성과 협업력이 필요한 직무가 인간이 수행하는 주된 직무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Kim,

2016). 인간이 이 사회에서 수행해야하는 주된 역할이 창조력과 협업력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탐구 필요성과, 이러한 탐구를 경영학에서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경영관점에서 이러한 인간의 직무는 기존 산업사회의 조직원들이 수행하는 직무와 매우 다른 것이므로, 경영학의 각 분야 지식들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있다. 고대에서 중세시대까지는 종교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가 이외에는 조직의 규모가 작았으므로 경영이 주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종교가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근대이후에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되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고용의 상당부분을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족국가가 성립되면서 공공조직에 대한 경영활동 수요도 크게 증대되었다. 경영이 사회구원 역할을 많이 담당하게 되고 경영이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향후에는 경영이 필요한 조직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개인의 일상에 경영활동의 영향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리터러시의 증대와 지식획득 비용의 대폭 절감으로 개인의 역량은 크게 향상되었고, 따라서 개인의 잠재적 힘은 크게 증대되었다. 조직에서 경영자의 역량과 조직원의 역량 간에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영자의 역할과 직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즉 직원의 자율성 증대와 경영자의 창조 역할 증대로 이어지는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의사소통 경로와 의사소통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영자의 역할과 경영원리도 변화하게 된다. 경영자에게 고도의 창조적 지적작업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창조적 작업과 인간우위 작업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경영원리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1.2 서비스철학의 경영관

새로운 경제사회와 인류세의 공통원리를 반영한

서비스철학 및 서비스철학을 적용한 경영관은 아래와 같다(Kim, 2019a)

태극 모델로 서비스 철학은 정립되었다. 대립자 각각이 반대자와의 철저한 상호 견제 균형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함께 발전해가는 모델이다.



Fig. 2-2 A Structure of Service Philosophy (Kim, 2019a)

또한 대립자간에 상대측의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면서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서비스철학의 운용모델이다. 이 모델은 과정 중심성이 강조된다. 경영에서의 이윤 창출 등 최종 결과가 아닌, 경영하는 과정, 수행하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또한 가시적인 유형 요소가 중심이 된 확정적 구조가 아닌, 비가시적인 무형 요소가 중심이 된 유연한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철학 관점에서의 경영관은 아래와 같다.

현대 기업의 경영에 작용하는 두 개의 큰 힘은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기업 활동을 요구하는 힘과 경제적 이윤창출을 요구하는 힘이다. 이 두 힘이 임계점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시간축과 공간축을 따라 치열하게 조화 발전되는 구조가 신경영의 경영관이다. 기업이 사회적 기관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사

회적가치 창출과 함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며,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경영활동을 하는 경영관이다(Kim, 2019a).



Fig. 2-3 A Management Perspective of Service Philosophy(Kim, 2019a)

2.2 경영 및 경영학의 문제

현재의 경영 및 경영학의 문제는 한국경영학회에서 심층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시한다. 이들은 글로벌대학과 교수들의 네트워크인 RRBM(Responsible Research in Business Management)의 선언을 인용하며 경영학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데, 현재의 경영학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하였다(Lee et al., 2018)

우선 현재의 경영학은 경영경제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사회 기여가 매우 부족하다고 분석되었다. 경영경제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학은 과거 대량생산시대의 기업이론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수십년 전의 경영학과 동일 내용을 교

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계획 집행 통제 등 경영 과정, 리더십, 회계, 생산, 마케팅, 인사 등 전통적 주제들을 강의하고 있어 현대 경제의 변화를 못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들어 제조가 자동화되며 거의 서비스기업 중심인데, 대부분의 경영학 교육과정은 과거 제조기업의 교과과정이어서 변화된 기업환경과 취업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큰 문제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영학 내부 분야들간의 통합 교육이 부족하고, 타 학문과의 통합교육은 더욱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새로운 경쟁과 제휴, 기술혁신 등 변화와 혁신을 이끌 인재를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무와 괴리가 큰 상태가 현재 경영학 및 경영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경영철학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경영학의 본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고 건전한 철학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윤 창출 등 결과만을 중시하는 일원론적 사고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중시하는 새로운 경영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치 다원주의와 비결과주의가 필요하며, 경영철학과 경영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경영학이 단순한 수단적 지식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성을 회복하여 인간과 사회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충만한 지식체계와 학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경영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열린교육, 질문력 배양교육 등을 해야 하며,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환경은 각 나라마다 다른 수 있으므로, 보편적 경영학 교육에 추가하여, 해당 국가의 경영현실을 반영한 경영교육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영학은 산업사회의 경영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경영학이 필요하고, 경영학 교육도 새로운 경제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경제사회의 요구와 특징을 반영하고, 현재 경영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경영학 구축이 요구된다. 아래에서 신경영학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3. 신경영학 프레임워크

신경영학은 본질학문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응용학문이 아닌 본질학문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려면 인류사회의 공통원리가 반영되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이론과 원리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영리 조직만이 아닌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구조를 아래에 제시한다.

3.1 신경영학의 기반구조

본질학문이 되기 위해 신경영학의 사상적 기반, 구조적 기반, 운용적 기반은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

3.1.1 공통원리와 경영학

세상을 움직이는 공통 원리는 인류대표사상, 우주론, 생명론, 문명론, 예술론 등을 분석하여 도출되었다(Kim, 2019a). 도출된 공통원리를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인류의 공통 사상은 중도 중용론이라 할 수 있다. 비유비무 또는 네티네티론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서양사상의 출발점인 인도 우파니샤드의 브라흐만 설명개념인 neti, neti론(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님), 도덕경의 비유비무사상(Lao-Tzu, 1982), 불교의 중도사상, 유교의 중용사상, 주역과 원자물리학의

태극상보론, 주역의 음양대원리, 상반상성론 등이 모두 공통되는 중도사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양철학의 대부 소크라테스가 널리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 무엇이나 지나치지 않게’ 라고 한 그리스 델포이 아폴론신전의 경구(Held, 2007)도 중도중용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흘러감과 변해감이 중심사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불교의 제행무상론, 같은 강물에 두 번 밭을 담글 수는 없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흘러감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그림자론 등이 인류의 삶과 세상에 대한 공통적인 사상이다. 즉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상이다. 결과는 계속 변해가므로, 과정 자체가 본 면목이라는 것이다(Lamprecht, 1963; Yang, 2012).

인체와 생명원리의 근본은 대칭성과 균형성이다. 인체의 구조는 대칭적이다. 대칭적인 인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데 비해, 대칭성을 잃은 인체는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에 인간은 신체 동작으로 신과 소통하였다. 신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춤을 추었는데, 대칭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훌륭한 춤동작이 가능하다. 대칭과 균형은 인체와 생명이 운행되는 근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움직이는 공통원리는 비유비무론(중도론)과 변해감론(변증법), 대칭균형조화론, 상보상반상성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원리를 반영하여 학문이 구축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본질 학문으로서의 요건을 경영학이 갖추는 방법이 될 것이다.

3.1.2 기반구조

신경영학의 조건은 기존 경영학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서, 본질학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경제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가치있는 학문이 되어야 하고, 또한 쉽게 노후화되는 응용학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오래도록 가치를 가지는 본질학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경영학은 과학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신경영학은 철학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 신경영학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1. 경영의 근본 원리를 철학에 기반하여 표현해야 한다.
2.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 힘의 원리가 경영원리 기술에 반영되어야 한다.
3. 본질학문이 되기 위해 우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수학적으로 정치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경영의 근본원리를 철학에 기반하여 표현하기 위해 동서양 사상을 분석하여 경영학 정립에 반영한다. 진리는 동서고금이 공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경영학의 근본원리는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원을 추적하면 진리가 하나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 물리학과 고대 철학이 만나고 있고, 과학적 귀납적 발견과 직관적 연역적 발견이 일치해가고 있기 때문이다(Kim, 2019b, 2019c, 2019d, 2017). 인간이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도 진리가 일치하고 일관된다면 그것은 한계를 가지지는 하지만 공통원리일 가능성이 높다. 공통원리를 경영학에 반영해야 경영학이 본질학문이 될 수 있다. 경영현장의 무상함과 다양한 응용성격을 감안하고, 경영주체인 유한한 생명의 흘러가는 운명의 인간이 이 세상에 처한 근본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공통원리는 본질적 차원에서 경영학의 기반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공통원리를 경영학의 새 구조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 힘의 원리가 탐구될 수 있고, 우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경영원리가 탐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과학화된 현대 경영학은 철학을 대체하는 본질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변적인 현대 철학을 넘어서서 경영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이

수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 원리를 구현하고 탐구하는 학문으로 본질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3.2 경영학 프레임워크

경영학을 수학적 구조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세상 공통원리의 수학적 구조를 반영한다. 동서양 사상의 근본원리는 태극상보론, 주역의 음양대대원리, 상반상성론, 동서양 공통철학인 변증법사상 등 2원 및 3원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2나 3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구조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Kim, 2019a). 창조의 수 2로 표현되는 태극 원리가 공통이며, 완전수 3을 반영하여 진리체계를 표현하고 있다.

경영학도 2 와 3 이 기본 구조가 된다. 경영학을 표현하는 정의, 경영학의 기본구조와 세부구조, 그 원리 등이 모두 2와 3으로 표현되거나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영학을 구성하고 있는 분야는 경영과정, 인사조직, 생산관리, 마케팅, 회계학, 재무관리, 경영정보, 국제경영, 경영전략, 경영이론, 경영사 등 매우 산만한 구조이며 이 또한 계속 변화하여 그 전체가 중심을 잃고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경영학이 신 경영학에서는 2 나 3 으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이 구조에 의해 경영학은 경영철학, 경영자론, 경영기술 등 3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며, 각 분야는 유형과 무형, 조직과 환경 등 2개의 상반상성 구조로 기술된다.

경영학은 본질학문으로서 경영의 철학을 탐구하는 분야인 경영철학 분야,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탐구하는 분야인 경영자론 분야, 경영의 과정과 기법 들을 탐구하는 분야인 경영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각 분야는 2를 중심으로 정의되고 탐구된다. 경영철학은 과정과 결과, 의(義)와 이(利), 실체와 관계, 유형과 무형, 본질과 기법, 창업과 수성 등 두 개의 원리에 대한 탐구가 중심이 된다. 경영자론은 경영 주체로서의 경영자와 경영 대상으

로서의 경영자, 이성적 존재로서의 경영자와 비성적 행동 주체로서의 경영자, 창조자로서의 경영자와 관리자로서의 경영자 등 두 개의 상반되는 경영인에 대한 탐구가 중심이 된다. 경영기술 분야는 전통적인 경영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경영과정, 경영기능, 경영기법 등 3 분야를 탐구하는 분야이다. 각 세부 분야는 또한 각각 3개씩의 세세분야를 가지도록 구성하며, 이는 제4장에서 제시한다.

이와 같은 경영학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 <Fig.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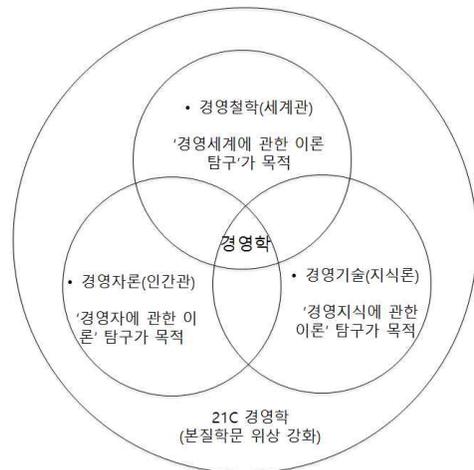


Fig. 3-1 A New Business Administration Framework

각 분야 간의 철저한 균형과 상반상성 원리가 적용되는 신경영학의 세부 구조를 아래 제4장에서 제시한다.

4. 신경영학 상세 구조

신경영학의 세 분야인 경영철학, 경영자론, 경영기술 분야의 기본 구조와 탐구 대상을 제시한다.

4.1 경영철학

경영철학은 경영의 철학적 구조와 운용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다. 본 분야의 연구는 기존 경영과 차별화되는 신경영의 본질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관련되는 경영의 철학적 주제들을 탐구한다.

신경영은 기존 경영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차별화된 구조를 가진다. 경영 목적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기존의 이익 중심의 일원론적 경영에서 이익과 의로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원론적 구조를 가진다. 또한 결과 중심이 아닌 결과와 과정 공동 중심 경영 구조를 가진다. 과정 자체도 중요하고 과정의 합이 결과가 된다는 관점이다. 대칭성 관점에서는 기존의 리괘(주역에서, 양이 음을 감싸고 있는 구조의 괘) 중심 경영에서 감괘(음이 양을 감싸고 있는 구조) 중심 경영으로 변화된다. 서비스경제시대가 도래하고 무형재화가 현대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음(陰)과 무형재화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양(陽)과 유형재화가 이들을 보조하는 구조를 가진다. 기존 경영에서는 실체 중심의 가시적 경영이 중심인데 비해 신경영에서는 비가시적 무형의 관계가 경영의 중심 대상이다. 따라서 대대원리경영 상반상성 경영원리가 작동된다. 기존 경영은 기능과 기법 중심 경영인데 신경영은 경영철학과 경영자론 등 보다 경영의 본질을 강조하는 경영이며, 신경영학은 기존의 응용학문 경영학이 아닌 주류학문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경영철학 연구 분야에서는 이러한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철학적 기반을 탐구한다. 또한 상반상성 관점에서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철학적 이슈를 탐구한다. 이를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Kim, 2018).

Tab. 4-1 A New and Old Management

기존경영	신경영 서비스경영
이 중심 경영, 일원 경영	의 중심 경영, 이원 경영
결과 중심 경영	과정 중심 경영
리(불)괘 경영 (외양 내용)	감(물)괘 경영 (외음 내용)
실체 (가시적) 경영	관계경영 / 대대원리경영 (상반상성 경영)
기능/기법 중심 경영 (인사조직/재무/마케팅/생산 등 경영 기능 중심)	본질 경영 (경영 철학 중심 / 경영을 통한 타 학문 방향 선도)
응용 학문	주류 학문 (Holistic tathatā)

신경영을 운용하는 원리와 모델에 대한 연구도 경영철학의 주요 탐구 대상이 된다. 신경영을 운용하는 기본구조는 수요자와 공급자, 환경과 경영자, 시간과 공간 등의 여러 힘이 함께 작용하는 나선형 순환의 장이 된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 <Fig.4-1>과 같다(Kim, 201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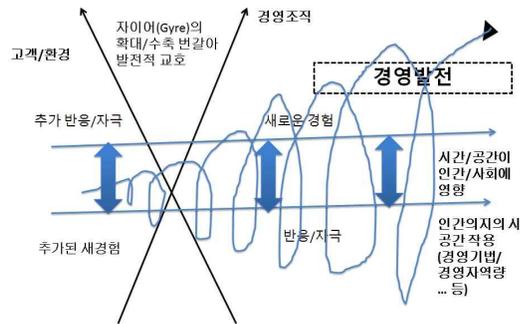


Fig. 4-1 A Management Operation Model

위 그림에서와 같이 경영조직은 고객 및 경영환경과 나선형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 또는 쇠퇴한다. 경영조직이 고객과 환경에게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고 환경과 고객은 그에 대한 반응을 한다. 고객의 반응과 자극을 피드백받아 경영조직은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고, 고객은

다음의 반응과 자극으로 경영조직의 활동을 안내한다. 이러한 사이클이 선순환으로 진행된다면 경영조직과 고객은 상호 발전하는 사이클로 진행되며, 반대로 악순환 사이클로 진행된다면 경영조직은 쇠퇴한다. 이러한 사이클은 시간축과 공간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경영활동이 수행되는 시간과 공간이 경영조직과 고객 및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 시대와 부합하는 경영, 공간과 부합하는 경영이 살아남고 발전한다. 시간 및 공간의 흐름과 인간 의지의 흐름은 상호 작용한다. 즉 어떤 시간 또는 공간에서 어떤 인간의 의지가 작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경영활동이다. 또한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경영기법을 적용할지도 경영자의 주요 의사결정이다.

이러한 의지와 결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 경영철학이다. 세상의 원리와 부합하고, 신경제사회시대와 부합하는 경영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경영 활동의 성공확률이 높아질 것이므로, 경영철학에 대한 탐구는 현대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경영활동인 것이다. 조직에서 좋은 경영철학을 운용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원리적 경영활동이 되는 것이므로 경영철학은 경영학 본질 차원과 개별 조직 경영 차원에서 모두 중요한 탐구 분야가 된다.

새로운 경영의 중심인 경영철학의 3대 탐구 분야는 아래 그림 <Fig. 4-2>와 같이 정의된다. 목적론, 대상론, 원리론(방법론)이 경영철학의 3대 탐구 분야다. 목적론은 경영의 본질과 경영의 이유 및 경영의 목적 등을 탐구하는 분야다. 대상론은 경영의 대상에 대한 탐구인데, 제품과 서비스 등 경영대상 재화에 대한 탐구, 개인부터 국가 및 세계 단위까지 다양한 대상 조직에 대한 탐구를 포함한다. 영리조직부터 비영리조직, 순수 봉사조직까지 다양한 유형의 조직에 대해 그 본성과 특성을 탐구한다. 원리론(방법론)은 핵심 경영원리와 방법론을 철학적 차원에서 탐구하는 분야다. 경영의 본질을 반영한 경영의 중심 방법론과 원리를 탐구하는 분야다.

경영의 근본에 대한 탐구는 경영과 관련된 세상

의 근본 변화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탐구되어야 한다. 경영이 수행되는 인간세계와 자연세계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등 인간에 대한 신학문들이 계속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내면서 경영의 주체이자 객체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에 대한 근본적 탐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또한 물리학과 생물학 등 자연세계에 대한 학문도 새로운 발견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경영 탐구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의 직접적인 대상인 조직과 조직인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조직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으며 사회와 조직 간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새로운 조직인(人) 유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경영철학이 반영해야 한다. 기원전 6세기 경에 탄생된 철학이 지금도 계속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처럼 경영철학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탐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경영의 중심 분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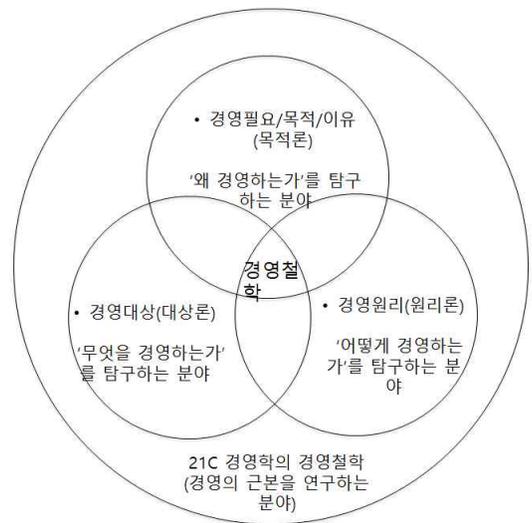


Fig. 4-2 The Three Fields of Study in Management Philosophy

4.2 경영자론

경영자론은 경영주체로서의 경영자 차원과 경영대상으로서의 경영자 차원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또한 경영자와 조직원 모두 인간이므로 이성성에 대한 연구와 비이성성에 대한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조직의 성격에 따라, 또 경영자의 역량이나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 경영자론은 다양한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다. 어떤 성격의 조직에 어떤 유형의 경영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매우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답이 있기는 어렵다. 5차 방정식 이상은 근의 공식을 구해낼 수가 없듯이 경영자론도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학문분야이다. 그래서 인문학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사한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통하여 순수 인문학의 한계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영자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학문 분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경영자론을 객체로서의 경영자 관점과 주체로서의 경영자 관점을 포용하여 태극 구조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Fig.4-3>과 같다.

또한 경영의 대상인 인간 경영자와 인간 조직원을 탐구하는 연구 분야도 아래 그림 <Fig.4-4>와 같이 태극 구조로 모델링 할 수 있다.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영자 및 조직원의 행동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영자 및 조직원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가 모두 필요하고, 이들 두 분야의 융합 연구도 필요하다. 경영자론 연구는 조직의 유형과 조직의 환경, 조직생명주기, 산업환경,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경영자의 내재적 역량과 환경과의 관계 등 동태적 연구도 필요하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한비자의 저술 등도 신경경영학의 경영자론 관점에서는 주요

탐구 사례가 된다. 경영학의 범위가 넓고 깊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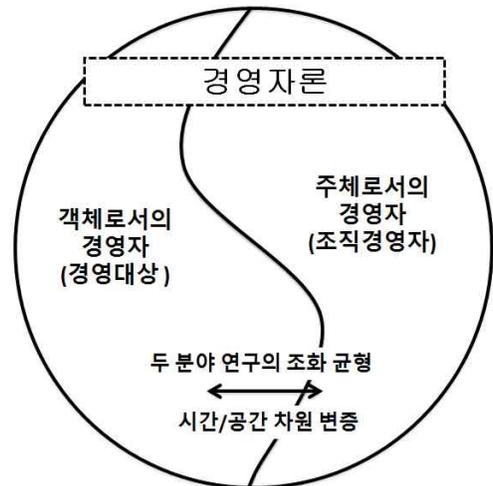


Fig. 4-3 A Structure of Manager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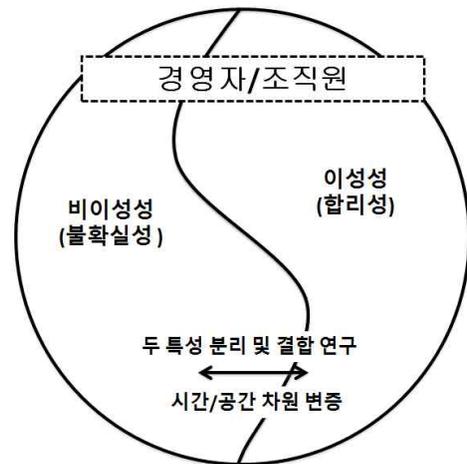


Fig. 4-4 A Structure of People Study

새로운 경영자론의 3대 탐구 분야는 아래 그림 <Fig. 4-5>와 같이 정의된다. 즉 경영자는 누구인가를 탐구하는 소양론 분야, 경영자의 과업과 역할을 탐구하는 과업론 분야, 경영자의 역할 수행 방법을 탐구하는 방법론 분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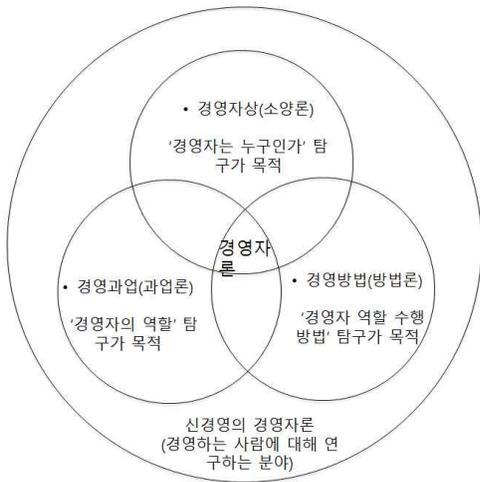


Fig. 4-5 The Three Fields of Manager Research

이렇게 심화된 경영자론이 구축되면 경영학이 본질학문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3 경영기술

경영기술은 기존 경영학의 분야를 포괄한다. 즉 경영프로세스, 경영기능, 경영확장 분야가 모두 경영기술 분야에 포함된다.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 그림 <Fig4-6>과 같다.

경영프로세스는 계획, 집행, 통제의 경영관리과정에 대해 탐구하는 분야다. 경영기능은 회계, 인사, 조직, 재무, 마케팅, 생산, 경영정보 등의 경영기능을 탐구하는 분야다. 경영확장은 확대된 경영환경에서의 제반 분야를 탐구하는데, 국제경영, 창업 등이 주된 분야다. 이들 분야도 각각 세 개씩의 주요 분야로 탐구분야를 제시할 수 있다.

경영프로세스 분야는 계획, 집행, 통제의 3개 세부 분야로 아래 그림 <Fig4-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각각 계획기술, 집행기술, 통제기술을 탐구하는 분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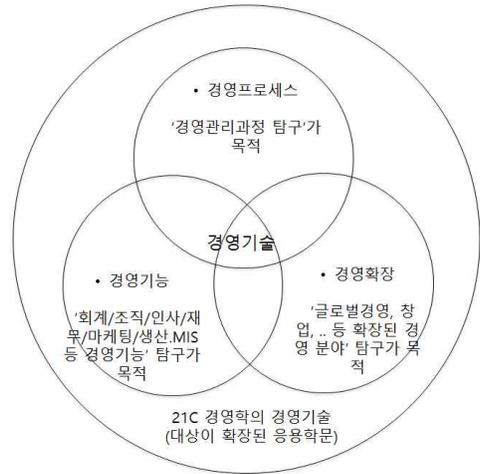


Fig. 4-6 A Management Technique Framework of New Business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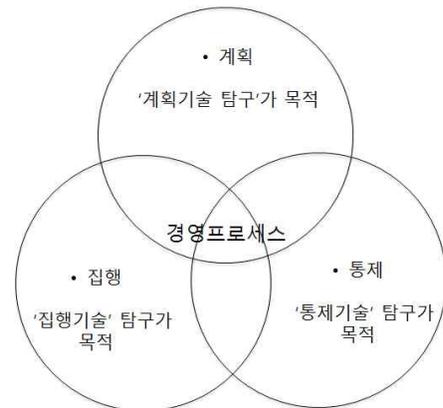


Fig. 4-7 A Management Process Framework

경영기능 분야는 코어기능, 전방(Front End)기능, 후방(Back End)기능 등 3개 세부 분야로 아래 그림 <Fig4-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은 조직의 핵심 활동기능, 핵심활동을 잘 하기 위해 앞에서 수행하는 기능, 활동 수행 후의 조직관리기술을 탐구하는 분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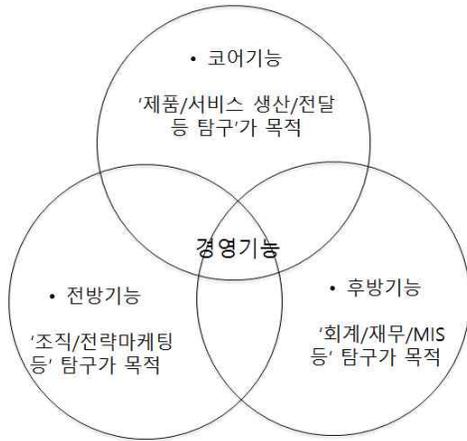


Fig. 4-8 A Management Function Framework

경영확장 분야는 창업/신사업확장, 공간축 확장(글로벌경영), 시간축 확장(지속가능경영) 등 3개 세부 분야로 아래 그림 <Fig.4-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각각 창업 및 사업 확장 탐구, 경영공간 확장 탐구, 조직 지속성 관련 탐구가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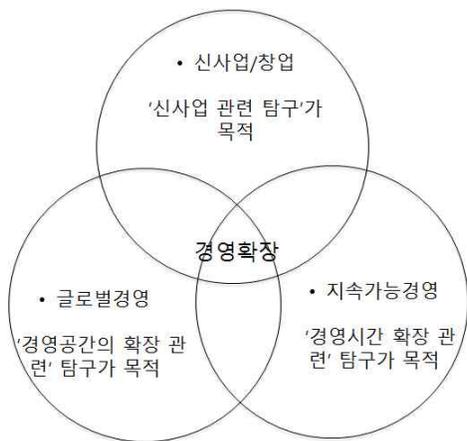


Fig. 4-9 A Management Expansion Framework

이와 같은 경영기술의 세부 분야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신경경영학에서의 경영기술 분야인데, 전통 경영학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주제들이며, 신경경영학에서는 행정 사회 등 비영리 조직 경영을 포함한 경영

대상의 확장, 인공지능과 IoT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혁신적 변화로 인한 인간과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경영의 기술을 탐구하는 분야다.

5. 토의 및 과제

본 연구는 신경경영학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질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을 신경경영학이라고 명명하고 신경경영학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신경경영학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현대경제사회의 변화와 경영의 역할 변화를 전반적으로 조망하여 신경경영학에의 요구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 경영 및 경영학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경경영학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경영학이 본질학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한 후, 인류사회의 공통원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경영학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세상 공통 원리의 기반 구조를 바탕으로 경영학의 프레임워크를 3개의 분야로 제시하였다. 경영철학, 경영자론, 경영기술 등 3개의 분야로 신경경영학은 구성되었다. 각 분야는 또한 3 및 2의 구조로 상세 분야가 정의되고, 탐구 주제가 설정되었다.

향후 연구는 신경경영학의 체계를 강화하여 신경경영학을 본질학문으로 격상시키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제시된 세부 분야에 대한 심화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들 두 가지 방향의 연구가 병행되며 융합될때 신경경영학은 본질학문이면서 미래의 주류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Held, Klaus(2007), *Treffpunkt Platon*, Kang Seo Lee Tr., Hyohyung Publishing Co., (클라우드 헬트(2007), 지중해 철학기행: 모든 길은 플라톤으

- 로 통한다, 이강서 역, 효형출판)
- [2] Kim, Hyunsoo (2019a), A Study on Service Philosophy for New Economy and Societ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4, Dec. 2019, pp.1-17 (김현수(2019a), 신경제 사회 중심사상으로서의 서비스철학 연구, *서비스 연구*, 제9권 제4호, pp.1-17)
- [3] Kim, Hyunsoo (2019b),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Wester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3, Sept. 2019, pp.1-16 (김현수(2019b), 서양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3호, pp.1-16)
- [4] Kim, Hyunsoo (2019c),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instream Oriental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2, June 2019, pp.1-15 (김현수(2019c), 동양주류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2호, pp.1-15)
- [5] Kim, Hyunsoo (2019d),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Korea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1, March 2019, pp.1-16 (김현수(2019d), 한국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1호, pp.1-16)
- [6] Kim, Hyunsoo (2018) New Management of Management, Kookmin University Press, (김현수 (2018), 경영의 신경영, 국민대학교 출판부)
- [7] Kim, Hyunsoo (2017),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Philosophy as the Service Economy Philosoph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7, No.3, Sept. 2017, pp.105-118 (김현수(2017), 서비스경제철학으로서의 한국고유사상 정합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7권 제3호, pp. 105-118)
- [8] Kim, Hyunsoo(2016), A Study on Accelerating Service Economy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6, No.3, Sept. 2016, pp.15-28 (김현수(2016),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경제화 촉진 연구, *서비스연구*, 제6권 제3호, pp. 15-28)
- [9] Lamprecht, S.P.(1963),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Kim Taegil, etc. Tr., Eulyou Culture Co. (렘프레히트(1963), 서양철학사, 김태길 등 역, 을유문화사)
- [10] Lao-Tzu(1982), *Tao Te Ching*, Ki Keun Chang Tr., Samsung Publishing Co. (노자(1982), 도덕경, 장기근 역, 삼성출판사)
- [11] Lee, Doohee, et al. (2018), A New Paradigm of Management Education, Maeil Economic Press (이두희 외 23인(2018), 경영교육 뉴 패러다임, 매일경제출판사)
- [12] Yang, Haerim(2012),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Jipmundang (양혜림(2012), 서양철학사, 집문당)

Hyunsoo Kim(hskim@kookmin.ac.kr)



Hyunsoo Kim is a Professor of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majored in nuclear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cquired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science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with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Currently he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Society of Service Science,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ervice Industry as well as the chairperson of Service Korea Initiative. Based on those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ervice industry and academia, he devotes himself to the researches on Service Science and Service innovation.

A Study on the Framework of New Business Administration

Hyunsoo Kim*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rive a new business administration framework based on the service philosophy established in the previous research. We proposed a business administra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changes of modern economic society and solves problems of existing business administration. The problem of the existing business administration is analyzed by analyzing the essential problems of business administration as a discipline and the practical problems of current business administration. New management theory must have a status as an intrinsic discipline, so it must meet the common principles of human society. The principles of universe and the life principle of mankind, which are the environment in which human beings live, were reflected. As a result of deriving these common principles, qualification requirements as the intrinsic disciplines of business administration can be defined. The new business administration discipline is constructed in three fields. Business philosophy, a theory of manager, and business administration skills are three sub-fields of new business administration. We define the detailed structure of each field of new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resent the main research topics. In the futu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epen the culture of essenc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siness administration theory in detailed field.

Keywords: New Business Administration, Service Management, Service Philosophy, Management Philosophy, Manager Theory, Business Administration Technology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skim@kookmin.ac.kr